

방랑

Wandern

1. 어원 및 개념정의

‘회전하다 wenden’를 의미하는 고고지독일어(ahd)인 wanton의 반복형에서 유래한다. 즉 반복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이리 저리 가다 hin und her gehen’, ‘어디론가 간다 irgendwohin gehen’, 혹은 ‘자신의 위치를 바꾸다 seinen Standort ändern’를 뜻하게 되어, 결국 방랑하다를 의미한다.

방랑이란 집을 떠나서 이리 저리 떠도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의미이다. 즉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이역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동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적에게 쫓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향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떤 대상을 쫓아서 움직일 수도 있다.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방랑의 의미와 관계해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방황과의 차이점이다. 방황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이곳저곳으로의 지역적인 이동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뜻한다. 반면에 방랑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 저리 방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확고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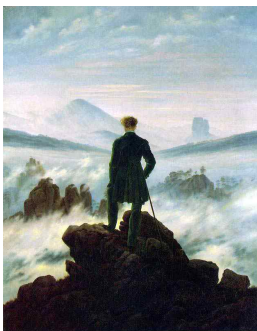
2. 모티프 발달사



방랑의 모티프는 이미 고대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가장 전형적인 방랑자의 모습이다. 그는 호머의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으로 라틴어로는 울리시즈라고 불린다. 트로이 전쟁에 참가해서 목마 속에 병사를 숨기는 피를 써서 트로이를 함락시킨다. 전쟁에 승리한 후 그는 귀향길에 오르는데, 10년간에 걸친 순탄하지 않은 그의 귀향길은 방랑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방랑자 이미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에게 마실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아 영원히 떠돌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는 전설의 아하스페어 Ahasver인데, 그는 17세기 이후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별명이 되었다. 그 외에도 카

인, 순례자, 혹은 중세의 기사 등도 방랑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인물들이다. 근세문학에서 방랑의 모티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교양/발전소설 Bildungsroman이다. 주인공은 집을 떠나 방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면 그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물로 성장한다. 또한 그가 방랑기간 중에 머물렀던 곳에서 배운 기술은 그의 평생 직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이 충분치 못했던 시절 집을 떠나서 겪는 경험은 바로 생생한 산교육이다. 모험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랑 모티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겪는 여러 모험은 교양소설에서와는 달리 교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호기심 충족의 의미가 크다. 주인공이 가는 이국적인 지역에 대한 묘사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악한소설 Schelmenroman에서도 호기심 충족이 큰 역할을 한다. 일반인이 갈 수 없는 사회의 어두운 곳들을 방랑하는, 혹은 어두운 사건을 경험하는 악한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은 사회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된다. 다만 모험소설과의 차이점이라면 악한소설에서는 사회를 풍자하는 성격이 있지만, 모험소설에는 이러한 성격이 없다. 일반적으로 현대소설에서 방랑의 모티프는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보다는 주인공의 심리적인 방황이 주요 모티프로서 등장한다. 하지만 문학에서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여전히 방랑의 모티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인공이 어떤 보물을 찾아 나서면서 겪거나 마법사의 세계에서 겪는 모험과 방랑은 현대 오락영화의 주요 모티프이다(『인디아나 존스』, 『해리 포터』).

3. 모티프 유형



<프레데릭: 방랑자>

자발적으로 방랑길에 오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호기심, 신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 깨닫기 위한 신앙심, 고향/집안에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유를 향한 갈망 등이 방랑의 원인이다. 타의에 의해 방랑을 하는 경우는 권력투쟁에서의 패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 사랑에 실패한 절망감, 혹은 전쟁 등이 방랑의 원인이 된다. 방랑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경우는 주로 주인공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이리 저리 이동하는 경우이다. 방랑의 목적은 자아의 교육,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 호기심의 충족, 혹은 도주 등이다. 방랑을 떠나는 이의 성격이 정반대의 성향을 띠기도 한다. 즉 방랑자는 순수한 이상주의자이기도 하고 또한 정반대인 바보이기도 하다. 또한 방랑자는 지적인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몽상가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랑을 유형에 따라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자아 완성을 목적으로 떠나는 방랑: 교양소설에 나오는 방랑이 바로 이러한 형태인데, 독일 문학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또한 일시 머무는 곳에서의 일을 통해서 장차 직업을 위한 지식을 얻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겪은 주인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예: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 켈러 『녹색 상의를 입은 하인리히』, 모리츠 『안톤 라이저 Anton Reiser』)

2) 현실도피로서의 방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동경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방랑이다. (예: 노발리스 『푸른 꽃』)

3) 모험을 위한 방랑: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방랑을 한다. 새로운 곳에서 겪는 것을 묘사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아동소설에서의 방랑이 이러한 형태이다 (예: 아이헨도르프 『어느 건달의 생활』)

4) 고향에서의 추방 때문에 하게 되는 방랑;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방랑을 한다. 이 방랑생활 동안 주인공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다. (예: 뒤렌마트 『노부인의 방문』)

5)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방랑: 순례자로서 하는 방랑. 혹은 종교적인 위로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걷는 길이 바로 이러한 방랑이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자아완성
	현실도피
	모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추방
	전쟁
	자유추구
	권력투쟁에서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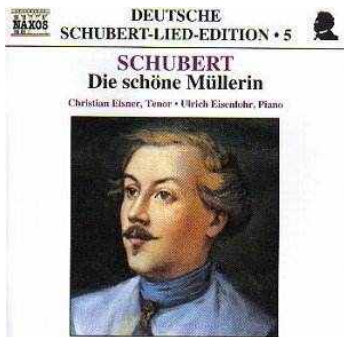
	사랑을 찾아 나섬
	직업적 교육
	절망감
	종교적인 이유(성지참배, 성배를 찾아나서는 길)
과정	낮선 세계의 경험
	방탕한 생활
	수도자적 고행
	기술의 습득
	자연과의 교감
	사랑에 빠짐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재
	고난/위기
	순탄한 여정
	은자와의 조우
결과	귀향
	사랑의 완성
	종교적 깨달음
	독자적 삶의 기반 완성
	독자적 삶의 기반 완성
	정체성 상실
	죽음
	타향에 정착
	보물의 발견
	도덕적 완성
인격적 완성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처녀 Die schöne Müllerin*

작가	빌헬름 뮐러 Wilhelm Müller. (1794-1827)
장르	연작 장편시
생성년도	1821
등장인물	방랑하는 청년 물레방앗간 아가씨 사냥꾼

* 피종호 (번역): 독일 연가곡, 유로서적, 2007년.

5.1. 내용 요약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음반>

전형적으로 낭만적인 내용이다. 한 젊은이가 방랑중이다. 그가 시냇물을 따라 걷다보니 어떤 물레방앗간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그는 도제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의 새로운 스승/마이스터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다지 그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 날 등장한 사냥꾼에게 마음을 주고 만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남성적이고도 야성적인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근사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절망감에 빠진 이 젊은 도제는 시냇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시냇물은 이 시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젊은 도제는 이 시냇물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청년과 시냇물은 함께 노래를 번갈아 부르기도, 마지막 연에서는 이 시냇물이 이 불쌍한 젊은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이 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슈베르트에 의해서이다. 그가 이 시를 보고 반해서 작곡을 하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모두 25개의 연작시였지만, 슈베르트는 이 중 20개의 시를 선택해서 작곡을 했다. 각 시의 제목과 간략한 분위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방랑(Das Wandern): 희망에 찬 마음을 나타내듯이 물소리가 전주로 암시되고, '방랑자여'하고 부르는 소리에 메아리가 돌아온다.
- 2) 어디로(Wohin?): 상냥한 시냇물의 흐름이 피아노로 묘사된다. 젊은이는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시냇물을 따라서 내려간다.
- 3) 멈춰라(Halt!): 물레방아가 도는 소리가 들린다. 버드나무 그늘에서 물레방아는 노래를 부른다. 해는 빛나고, 물레방아의 노래는 젊은이를 포용한다.
- 4) 시냇물예의 감사(Danksagung an den Bach): 젊은이는 물레방앗간에 고용된다. 물레방앗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다. 젊은이는 시냇물에 감사한다.
- 5) 일을 마치고(Am Feierabend): 불타는 젊은이의 마음. 소녀의 위로의 맘, 편히 쉬라는 인사. 모든 것이 젊은이의 가슴을 흔든다.
- 6) 호기심이 강한 사내(Der Neugierige): 사랑하는 젊은이의 가슴은 불안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찬다. 사랑하는 마음의 미묘한 고뇌가 묘사된다.

- 7) 조바심(Ungeduld): 사랑의 조바심. 달아오르는 사랑에의 그리움.
- 8) 아침 인사(Morgengruß): 상쾌한 어느 날 아침. 젊은이는 처녀에게 아침 인사를 한다. 그러나 처녀는 수줍은 듯이 고개를 돌린다.
- 9) 물레방앗간 청년의 꽃(Des Müllers Blumen) 시냇가에 밝고 아름답게 물망초가 피어 있다. 꽃은 처녀의 꿈속에서 '잊지 말아 주세요' 하고 말한다.
- 10) 눈물(Thränenregen): 시냇가에 앉은 젊은이와 처녀에게 달빛이 쏟아진다. 시냇물은 노래를 부른다. 행복한 젊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다. 눈물이 물에 떨어진다.
- 11) 나의 것(Mein!): 처녀는 젊은이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었다.
- 12) 휴식(Pause): 사랑을 얻은 젊은이의 뜨거운 마음 뒤에 휴식이 온다.
- 13) 초록빛 리본(Mit dem grünen Lautenbände): 라우테(만들린과 유사한 현악기)에 매달아 둔 푸른 리본을 보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한다.
- 14) 사냥꾼(Der Jäger): 젊은이에게 강한 라이벌이 출현한다.
- 15) 질투와 자존심(Eifersucht und Stolz): 물레방앗간 처녀가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청년은 탄식한다.
- 16) 좋아하는 빛깔(Die liebe Farbe): 초록빛은 내 님이 좋아하는 색.
- 17) 싫어하는 빛깔(Die Böse Farbe): 분명히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안녕'을 외치고 떠나간다.
- 18) 시든 꽃(Trockne Blumen): 청년이 죽은 후에 부르는 탄식의 노래.
- 19) 물레방앗간 사나이와 시냇물(Der Müller und der Bach): 시냇물과 청년이 노래를 주고 받는다.
- 20) 시냇물의 자장가(Des Baches Wiegenlied): 청년을 위로하는 시냇물의 노래.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자아완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랑
- 서사구조: 더 큰 세상을 알기위해 방랑을 떠난 젊은이가 한 소녀를 만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생을 마감한다.

원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의욕
과정	사랑에 빠진다. 자연과의 교감. 여자의 변심.
결과	죽음

6. 작품목록

- 괴테 Wolfgang von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5-96)
- 켈러 Gottfried Keller: 『녹색 상의를 입은 하인리히 Der grüne Heinrich』 (1855)
- 모리츠 Karl Philipp Moritz: 『안톤 라이저 Anton Reiser』 (1785/1790)
- 노발리스 Novalis: 『푸른 꽃 Die blaue Blume』 (1802)
- 아이헨도르프 Eichendorf: 『어느 건달의 생활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 (1826)
-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 (1956)
- 헤세 Hermann Hesse: 『페터 카멘친트 Peter Camenzind』 (1904)

7. 연계 모티프

귀환, 도주, 모험, 성장, 속죄, 순교자, 여행, 집시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방랑 + 순교자
스토리	종교적인 체험을 목적으로 집을 떠난 주인공은 여러 성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